

일본의학도서관협회 공식 저널 「IGAKU TOSHOKAN」의 역할 및 편집 업무

일본의학도서관협회 IGAKU TOSHOKAN 편집위원회

Roles and Editing Tasks of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Official Journal 「IGAKU TOSHOKAN」

IGAKU TOSHOKAN Editorial Board,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okyo, Japan

Publishing a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 official journal 「IGAKU TOSHOKAN」 is an important business of JMLA.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1954. The content consists of articles on information activities and services in medicine and related fields, as well as regular and news articles that emphasize communication among readers. There are 3 main editorial policies: 1) media for Japanese medical librarians to discuss and inform each other, 2) something useful for medical librarians as well as users, and 3) accumulation of knowledge. The editorial board has 9 members. Editorial work is online, but editorial board members meet for final proofreading. There are 7 regular articles: 1) From the Member Libraries, 2) Forum, 3) Letter to the Editor, 4) Reference Cases, 5) Book Reviews, 6) News, and 7) Journal Club. 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the shape of communication. However, the *raison d'être* of the journal remained the same. We will continue our activities as an entity that supports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our members.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4-9]

서론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창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 협회는 1968년에 설립된 이후로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제약회사 등의 회원 도서관에 대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문헌전송서비스는 회원 도서관을 통해 많은 의학도, 의료 전문가, 연구자들의 학습, 임상, 연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eSH 인덱싱 프로젝트 및 저널/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일본의 의학도서관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Received November 30, 2023, Revised December 13, 2023, Accepted December 29, 2023

Corresponding author: Nobuyuki Taguchi (田口宣行)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10 Kanda-Jinbocho, Chiyoda-ku, Tokyo 101-0051, Japan

Tel: 81-3-5577-4509, Fax: 81-3-5577-4510, E-mail: editorial-A@umin.ac.jp

본 논문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편집위원회에서 번역한 것임.

Copyright © 2023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한, 2020년 2월 6일에는 COVID-19 관련 자료의 공개 액세스 링크를 공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쌓아온 전임 이사장, 이사, 의학도서관 직원,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IGAKU TOSHOKAN (醫學圖書館) 소개

이번에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의 공식 저널 “IGAKU TOSHOKAN” 편집위원회에 기고를 의뢰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고에서는 IGAKU TOSHOKAN의 역할과 편집 작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GAKU TOSHOKAN의 발행은 JMLA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창간은 1954년으로, 의학 및 관련 분야의 정보 활동 및 서비스에 관한 기사와 독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기 기사 및 뉴스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기는 연 4회(3, 6, 9, 12월)이며, 발행 부수는 각 호마다 1,450부입니다.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집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의학 도서관 직원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미디어
2. 의학 도서관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자료
3. 지식의 축적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제 중 하나는 회원으로부터의 기고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도서관이나 저자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IGAKU TOSHOKAN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려면 저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 대표적인 편집장과 편집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처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학 도서관 직원의 참여가 이상적입니다. 과거에는 “Lancet”의 “Letters to the Editor”를 참고하여 “독자의 편지” 및 “편집 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편집위원회는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일본의 의학도서관 직원들의 바이블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IGAKU TOSHOKAN” 데이터

ISSN 0445-2429, Online ISSN 1884-5622

공식 웹사이트

• <https://jmla1927.org/bulletin.php>

온라인 저널 사이트

• J-STAGE: <https://www.jstage.jst.go.jp/browse/igakutoshokan1954/-char/en> (vol. 1 [1954]부터 vol. 55 [2008]까지 오픈 액세스)

• Medical Online: <https://mol.medicalonline.jp/> (vol.1 [1954]부터 현재까지 구독 필요)

창간: 1954년

발행 주기: vol. 1 (1954)부터 vol. 9 (1964)까지 격월, vol. 12 (1965)부터 분기별

편집위원회 구성원: 9명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편집위원회는 이사 1명, 편집위원장 1명, 그리고 편집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최소한의 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위원이 늘어나면 기쁠 것이지만, 증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는 위원회 활동을 총괄하며, 실제 편집 작업은 9명이 맡고 있습니다. 각 호를 2명의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의학도서관”은 1년에 4권 발행되므로, 편집위원은 1년에 한 번씩 1권을 맡게 됩니다. 위원들은 이 외에도 정기 기사를 맡아 저자를 찾아 최종 PDF 확인까지 담당하므로, 1년에 1번 책임을 맡았다 하더라도 연중 내내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 작업에는 인쇄 회사와 공동으로 구축한 편집시스템(웹 사이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원들이 일본 전역에 거주하더라도 원활하게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시스템은 개별 기사마다 원고, 검토 후 투고 원고, PDF, 교정 후 PDF 등을 편집 작업 진행에 맞추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편집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편집위원만이지만, 리뷰를 부탁드리고 있는 도서관 직원분들도 지정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편집 작업은 대부분 온라인(이메일 및 편집 시

스텝)으로 이루어지지만, 최종 교정만은 인쇄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온라인으로 완료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출력된 것을 3명의 위원이 가끔 의논하며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확인 작업은 전체 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를 통틀어 확인함으로써 놓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인쇄 회사를 방문할 수 없어 1권의 종이 원고를 우편으로 주고받거나, Zoom을 사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1페이지부터 확인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는 등의 고민을 해왔습니다.

1. 회원도서관 소개(회원 도서관으로부터)

매 호마다, 일본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 도서관으로부터 자신의 도서관에 관한 소개 기사를 기고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도서관에 대해 북부부터 남부까지 순서대로 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동 지역의 회원 도서관이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해 주시는 내용은 주로 서비스나 독특한 자료, 새로운 시도 또는 구체적인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고된 기사를 읽으면 해당 도서관의 역사,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노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곳의 도서관을 쉽게 방문할 수 없고 심지어 근거리의 도서관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잡지 상에서는 각 도서관의 현황을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각 도서관은 기고를 맡아주시지만, 소규모 직장으로 인해 바쁘거나 기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해 복구 대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등의 사정으로 기고를 맡아주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약간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2. 광장(포럼)

‘광장’은 각 도서관의 소식, 일상 업무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를 에세이 형식으로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매 호마다 주제를 정하고 1~3명의 분들에게 기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정은 책임자인 저와 위원장이 상의하여 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참고하여 정합니다. 이전에 다뤘던 주제로는 ‘기관 리포지토리’, ‘전자책’과 같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것부터, ‘Facebook’, ‘Twitter!’와 같은 홍보와 관련된 것, ‘영어 공부’, ‘도서관 직원의 전직’, ‘은퇴 후’와 같은 자기 개발 및 라이프 플랜과 관련된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시리즈 기획도 있어서 자신의 취미나 라이프워크에 대해 자유롭게 기고하는 ‘My Favorite Things’라는 기획은 1년에 1회의 속도로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보며 독자들이 알고 싶어할 만한 것이나 흥미로운 주제를 찾습니다. 주제 찾기는 힘든 면도 있지만, 먼저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다음은 기고자를 찾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JMLA 회원분들에게 기고를 부탁하고 있지만, 주제에 따라 비회원에게도 기고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연락처를 통해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간편하게 찾아가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쉽게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거절 당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수락해 주실 때의 기쁨은 큼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다뤄 업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고자의 예상치 못한 면을 알아볼 수 있거나, 향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멋진 원고를 제공하여 독자들에게 휴식처인 광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독자 편지(Letter to the Editor)

‘독자 편지’는 누군가에게 쓴 편지처럼 또는 에세이 형식으로 기고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1. 최신평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소감
2. 본지나 JMLA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나 요청
3. 도서관에서의 일상이나 토픽
4.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에피소드
5. 의학이나 도서관에 전하는 생각 등등

글의 양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본지 1페이지분), 영문 초록 등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글을 쓰시길 바라며, 자유롭게 펜을 휘저으며 쓰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도서관 소개’ 코너와는 조금 콘셉트를 다르게 가져가며, 최대한 글쓴이의 존재감을 살린 ‘라이브리언 개인의 시각’으로의 기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의 과묵한 성격 때문에 글쓴이가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도서관을 조직으로만 묻히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여기에 더 물감을 바르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더 확장하면 어떨까 등의 조언을 통해 교정할 때도 있습니다. ‘편지’니까 글쓴이의 표정이 보이는 듯한 글이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분들이 기고해 주셨고, 일상적인 일상이나 미래의 전망, 카운터 응대, 환자 도서실, 이벤트 및 출판 정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도서관 직원의 삶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시대’가 자주 주제가 되어 고생이 추억되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창의력이 참고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에서의 도서관 직원의 삶이 이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4. 레퍼런스 사례집

‘레퍼런스 사례집’은 2명의 편집위원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사례집’은 도서관 직원이 이용자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한 조사 중 다른 도서관에게 유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다양한 단서를 기반으로 한 조사로 소요된 시간이 많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검색에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등이 게재됩니다. 2023년 12월까지 156건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매력적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면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글 쓰기를 위해 작성자를 찾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20년 동안 의사 국가 시험의 남녀별 합격률을 조사한 사례나, 존재해야 할 표(table)를 오래된 도서에서 찾아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해결한 사례뿐만 아니라,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기만으로 조사할 수 없는 100년 이상 된 사건을 조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희귀한 레퍼런스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도구와 사고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쳐 답변에 도달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이 기사의 특징입니다. 기사는 “질문”,

“조사 경과”, “답변”, “정보원”, “보충”, “포인트”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부분에는 작성자가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이 일본의 “선류(Senryu)” 형식으로 유머 넘치게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레퍼런스 사례집”은 매번 재미있게 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도서 리뷰

매호마다 전국의 일본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에서 약 4명에게 기고를 부탁받아 작성하는 서평 코너입니다. 이 코너의 컨셉은 지난 2~3년 동안 출판된 의학 및 도서관과 관련된 책을 선택하고 해당 책의 매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작성자는 다른 출판물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을 회원들과 공유하며, 또한 회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도서 리뷰 코너에서 책이 소개되면 독자는 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했을수도 있는 책을 손에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서평에서는 다양한 독자층이 흥미를 가질 만한 책을 선택하여 읽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개된 도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히포크라테스 의학론집』 (히포크라테스 지음; 쿠니카타 에이지 편역, 이와나미 쇼텐, 2022) ISBN: 9784003390122

- 『대학의 디지털 혁신 - DX를 통한 교육의 미래』 (이노우에 마사히로 편저, 도쿄전기대학 출판국, 2022) ISBN: 9784501633806

- 『저 도서관의 그녀들』 (제넷 스카스린 찰스 지음; 다카야마 사코 옮김, 도쿄소우원샤, 2022) ISBN: 9784488011130

- 『불의 의사 동마』 (무라카미 모토카 지음; 카와노 이치로 공동 작화, 쇼에이샤 영점 코믹스GJ, 2019) ISBN: 9784088928043

도서 리뷰 코너를 편집위원으로서 맡는 데 있어서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서평을 써 주려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른 직업상 바빠서 기쁜 마음으로 서평을 써 주려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독서 습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책이 눈앞을 지나가기만 하고 책을 직접 들어 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YouTube, Netflix,

SNS 등의 유혹으로 어느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내고 최근 흥미로운 책을 읽은 적이 있고, 또한 서평을 써 주실 분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매번 가맹관 회원에게 글을 의뢰하고 거절당하는 일도 많지만, 글을 수락해 주시는 분을 찾았을 때는 정말 기뻐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책을 소개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동서남북(뉴스)

동서남북에서는 의학 도서관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일상 업무에 도움이 되는 뉴스 기사를 게재합니다. 뉴스 소스는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뉴스 기사를 수집합니다. 기사 작성은 편집 위원회와 지역회에서 선출한 편집 협력 위원에게 의뢰합니다.

정보원은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회의 개최 안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음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 의학 관련 도서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뉴스
2. 의학 관련 도서관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뉴스
3. 의학, 도서관 및 정보학, 출판 관련, 저작권 문제 등
4. 컴퓨터 및 통신(인터넷 포함) 관련 뉴스
5. 기타 주목할 만한 뉴스

매 호마다 많은 위원들에게 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목하는 뉴스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모이며, 독자들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때에 언급된 사건이나 사건들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돌아다보면 조금은 역사적 자료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Journal Club (JC)

Journal Club (JC)은 의학도서관의 일상 업무에 도움이 되는 논문 등을 소개하는 기사 소개 코너입니다. 독자의 개인 발전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목표로 선택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9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Library (의학)」, 「Library (다른 도서관)」: 도서관, 정보학 관련 주제
- 「Bibliometrics」: 학술 논문 등에 대한 서지 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이나 기사
- 「Computer & Internet」: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

- 「Health Care and Services」: 환자 도서 및 의학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교육 및 이용자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보
- 「Medical Education」: 의학 도서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료인 양성 기사
- 「Medical」: 가이드라인 관련 기사 등
- 「Miscellaneous」: 그리고 기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사

편집 위원회에서 JC 채택 논문을 결정하고, 편집 위원 및 지역 협력원의 협력을 받아 기사를 수집하여 소개 코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 시 앞서 언급한 9가지 기사 카테고리, 주제, 또한 영어 논문의 경우 영어 주제 일본어 번역, 저자명, 표지명, 년, 권호, 페이지, DOI, 키워드와 같은 서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다른 논문에 관련된 키워드를 3~5개 부여하고 있지만, 저자가 작성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하여 사용합니다. 저자 키워드가 없는 경우 기사 편집자가 내용에 맞는 키워드를 독자적으로 작성,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편집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은 본업을 병행하면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바쁜 때에는 본업 업무 이후에 늦게까지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작업은 즐겁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합체인가요? 아니죠, 아마도.

저자로부터 보내진 Word나 Excel 원고는 아직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저자와 편집 위원의 공동 작업으로 브러시업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즐거움, 완성된 기사를 정리하고 정렬하여 한 권의 출판물로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 기쁨, 성취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번 경험하면 이 감정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편집 위원의 동기부여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IGAKU TOSHOKAN도 글로 통하는 학술지로서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의 소통에는 오랜 역사가

있으며, 대면 소통을 변화시킨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술지의 존재 의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도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학 도서관이라는 분야에서 회원 간의 글로 소통을 지원하고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존재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50주년을 축하하

며 계속해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SUPPLEMENTARY MATERIAL

Supplementary material 1. Japanese version of the article is available from <https://www.kmla.or.kr>.

Supplementary material 1. Japanese version of the article

日本医学図書館協会 公式ジャーナル「IGAKU TOSHOKAN」の 役割と編集業務

日本医学図書館協会 IGAKU TOSHOKAN 編集委員会は

はじめに

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が創刊50周年を迎えられましたことを心からお喜び申し上げます。貴会は1968年に設立されて以来、医科大学、病院、研究機関、製薬企業などの会員館に対して、様々な協力活動を牽引してきました。主要事業のDocument Delivery Serviceは、会員館を通して多くの医療を志す学生、医療従事者、研究者の学習、臨床、研究を支援してきました。それは韓国の医学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ています。近年では、MeSH Indexing ProjectやJournal/Database Consortium事業を展開しており、これらの事業は日本の医学図書館員も関心を持っています。また、Feb, 6, 2020にCOVID-19関連資料のOpen Access Linkを公開したことは世界的に見ても迅速な行動でした。これまでの歴史を築かれてきた歴代理事長、理事、医学図書館員、事務局職員の皆様の御努力に、深く敬意を表します。

IGAKU TOSHOKANについて

今回、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 official journal 「IGAKU TOSHOKAN」 editorial boardに、寄稿の御依頼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本稿では、IGAKU TOSHOKANの役割と、編集作業についてご紹介します。

IGAKU TOSHOKANの発行は、JMLAの重要な事業の一つです。創刊は1954年です。内容は、医学お

よびその関連分野における情報活動・サービス等に関する記事と、読者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重視した定例記事やニュース記事で構成しています。発行は年4回(3, 6, 9, 12月)です。発行部数は各号1,450部です。創刊時から一貫している編集方針は以下のとおりです。

① 日本の医学図書館員がみんなで話し合い、知らせあうためのメディア

② 医学図書館員だけでなく利用者にも役立つもの

③ 知識の蓄積

一方で、雑誌の黎明期からの課題は、会員からの投稿が少ないことです。また、特定の館や著者への片寄りがあります。IGAKU TOSHOKANをできるだけ多くの人に読んでもらうためには、著者を増やすことが重要ですが、とても難しい課題です。歴代の編集長や編集委員たちが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が、今も解決していません。解決するには、すべての医学図書館員の参加が理想です。過去には、「Lancet」の「Letters to the Editor」を参考に「読者からの手紙」と「編集デスク」を作りました。これからもeditorial boardは参加者を増やす工夫を続けます。そして、日本の医学図書館員のバイブルとして巻を重ねていきます。

「IGAKU TOSHOKAN」データ

ISSN 0445-2429 Online ISSN 1884-5622

Official Website <https://jmla1927.org/bulletin.php>

Online Journal Site

・J-STAGE: <https://www.jstage.jst.go.jp/browse/igakutoshokan1954/-char/en>

vol.1 (1954)~vol.55 (2008) Open Access

- ・ Medical Online: <https://mol.medicalonline.jp/>
vol.1(1954)~current Subscription
- 創刊 1954年
- 発行頻度 vol.1 (1954)~vol.9 (1964) bimonthly
vol.12 (1965)~quarterly
- Editorial board member 9人

編集委員会 (Editorial Board)

編集委員会は、理事1名、編集委員長1名と編集委員8名の構成です。この人数は最低人数なので、もう少し委員が増えると嬉しいのですが、なかなか増員は叶いません。(Fig. 1)

理事は、委員会活動の総括を行うため、実際の編集業務は9名が担当しています。ひとつの号を編集委員2名と編集委員長で担当します。「医学図書館」は1年4冊発行ですので、編集委員は1年に1回担当号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委員は、この他に定例記事を担当しており、著者探しから最終PDFの確認までを担当しますので、担当が1年1回といっても、年間を通して何らかの編集作業を行っています。

編集作業にあたっては、印刷会社と共同で構築した編集システム (Webサイト) を用いています。編集システムを用いることで、委員は日本国内各地に住んでいるにも関わらず、円滑に編集作業をすすめ

ることができます。

編集システムは、個々の記事毎に、原稿、推敲後の入稿原稿、PDF、校正後のPDFなど、編集作業の進捗にあわせたファイルをアップロード、ダウンロードすることができます。編集システムにアクセスできるのは編集委員のみですが、査読をお願いしている図書館職員の方達も指定したファイルのダウンロードが可能です。

私たちの編集作業は、その殆どをオンライン (メール・編集システム) で行っていますが、最終校正だけは、印刷会社まで出張して直接確認しています。作業はオンラインで完結できる時代となりましたが、実際に印刷されたものを3人の委員で、時として意見交換しながら確認することの重要性を実感しているからです。確認作業は、丸一日朝から夕方まで、原稿のチェックだけを集中して行います。最初のページから最後のページまでを通して確認することで気づかなかったところに気づくこともあります。細切れで確認してきた記事が初めて「1冊」となる瞬間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パンデミック中は印刷会社に赴くことができず、1冊分の紙原稿を郵送でやり取りしたり、Zoomを使ってそれぞれの自宅で1ページ目から確認しながら意見交換したり (終わったときは深夜になりました) 工夫をしてきました。

ここからIGAKU TOSHOKANの定例記事についてご紹介いたします。

1. 会員館紹介 (From the Member Libraries)

毎号、日本医学図書館協会の会員館から自館についての紹介記事を寄稿いただいています。日本全国の会員館について北から南まで順番に書いていただくようにしています。現在は関東地区の会員館が執筆しています。書いていただく内容は重点を置いているサービスや特色ある資料、新しい試みや具体的な事跡などです。寄稿された記事を読みますと、当該図書館の歴史、いろいろな利用者サービスへの取り組み等知ることが出来ます。遠方の図書館へはそう簡単に訪問することが出来ません。近隣の図書館



Fig 1. IGAKU TOSHOKAN 編集委員会は、

でさえ、お伺いする機会はありません。誌上ではありますが、各館の現状を知ることが出来、有意義なコーナーだと思います。おおむね各館は執筆を引き受けてくださいますが、職場が少人数のため多忙で執筆に時間を割けない、地震など災害に被災して復旧対応優先であるなどの事情で、執筆を引き受けていただくことが出来ない場合もあります。仕方ないことです。でも、ちょっと残念ではあります。

2. 広場 (Forum)

「広場」は「各館の出来事の紹介」「日々の業務についての情報交換など」「関連分野の仲間が発信する各種の情報をエッセイとして掲載するコーナーです」。

毎号テーマを設定し「1~3名の方にご執筆いただいています」。

テーマの設定は「担当である私が思いついたものを委員長と相談して決めたり」「委員会で話題に上ったことをヒントにしたりして決めています」。これまで扱ったテーマは「機関リポジトリ」「電子書籍」といった図書館業務に関するもの、「Facebook」「Twitter!」といった広報に関するもの、「英語を学ぶ」「図書館員の転職」「定年後」といった自己研鑽やライフプランに関するものなど「さまざまです」。中にはシリーズ企画もあり「自身の趣味やライフワークについて自由に執筆していただく」「My Favorite Things」という企画は「年に1号のペースで10年以上続いています」。

テーマが思いつかない時には「インターネットを検索したり職場の同僚に何か最近気になっていることはないか聞いたりして」「読者のみなさんが知りたいようなこと・興味を持ってもらえそうなことを探します」。ネタ探しはたいへんな面もありますが「まず自分が知りたいと思っていることを取り上げられるので」「担当の特権だと思って」「楽しんでさせてもらっています」。

テーマが決まれば「次は執筆者探しです」。

基本的にはJMLAの会員の方に執筆していただきますが「テーマによっては会員以外の方に執筆していただくこともあります」。伝手をたどってお願いす

ることもあれば「飛び込みで打診することもよくあります」。残念ながらタイミングが合わずお断り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そのぶん「お引き受けいただいた時の喜びはひとしおです」。本当にありがたい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今後も幅広いテーマを取り上げ「業務の役に立つだけでなく」「執筆者の意外な一面を知ることができたり」「これからの毎日に元気がもらえたり」「読者のみなさんにとっての憩いの広場であるよう」「素敵な原稿を届けていくつもりです」。

3. 読者からの手紙 (Letter to the Editor)

「読者からの手紙」は誰かに宛てた手紙のように「あるいはエッセイ風に執筆者の思いのたけを綴っていただくコーナーです」。テーマは以下のように幅広く想定しています。

- ・最新号に掲載された記事への感想
- ・本誌やJMLAへの率直な意見や要望
- ・図書館における日常やトピック
- ・印象に残った人やエピソード
- ・医学や図書館に寄せる思い……などなど。

分量は比較的少なめ(本誌1頁分)で英文抄録なども不要なため「構えずに気楽な気持ちで」「のびのびと筆を走らせてもらい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自館の施設や取り組みなどを紹介する「会員館紹介」のコーナーとはすこしコンセプトを変えて「なるべく書き手の存在感を活かした“ライブラリアン個人の目線”での執筆をお願いしています」というのも「遠慮深い日本人気質のなせるわざか」「執筆者の方はどうしても自分をあまり出さずに」「組織としての図書館の中に埋もれがちになるところがあるのです」。初稿でそんなふう感じたときは「ここをもっと肉付けしたらどうか」「このあたりをふくらませたら良いかも?」などと推敲の際にアドバイスすることもあります。「手紙」なので「執筆者の表情が見えるような文章が理想です」。

これまでに100人以上の方にご執筆いただき「日々の徒然や未来予想図」「カウンター対応」「患者図書室」「イベントや出版情報など」「さまざまな切り口

から図書館員人生が語られてきました。ここ数年は「コロナ禍」がテーマになることが多く、苦労が偲ばれたり、しみじみ共感したり、工夫が参考になったりしたものです。今後もまたいろいろな視点からの図書館員人生が綴ら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4. レファレンス事例集 (Reference Cases)

「レファレンス事例集」は、2名の編集委員が担当しています。

「レファレンス事例集」は、図書館員が利用者から依頼されておこなった調査の中から、他の図書館にとって参考になる事例を紹介する記事です。さまざまな手がかりを元に調査して時間がかかった事例や、データベースを使った検索で工夫が必要だった事例などが掲載されます。2023年12月までに、156の事例が紹介されました。しかし、この記事は、魅力的な事例と出会えなければ、書くことは難しいです。執筆者を探すことに、私たちは、いつも苦労しています。

最近では、過去20年間の医師国家試験における男女別の合格率を調査した事例や、存在するはずの表(table)を古い図書から探し出した事例が掲載されました。たくさん種類のデータベースを使って解決した事例だけでなく、座ったままキーボードを叩くだけでは調べられない、100年以上前の事柄を調べた事例もありました。

たんに珍しいレファレンスの紹介ではなく、読者の現場で役に立つように、ツールや考え方も含めて、どのような調査のプロセスを経て回答にたどり着いたのかを順を追って説明するところに、この記事の特徴があります。記事は、「質問」「調査の経緯」「回答」「情報源」「補足」「ポイント」で構成されています。「ポイント」の所には、著者自身が事例から得た教訓が、日本の「川柳 (Senryu)」の形式でユーモアたっぷりに書かれることもあります。「レファレンス事例集」は、毎回楽しく読まれ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5. ブックレビュー (Book Reviews)

毎号、全国の日本医学図書館協会会員館から4名ほどに寄稿していただく書評コーナーです。このコーナーのコンセプトは、過去2~3年の間に出版された医学や図書館に関連する本を選び、その本の魅力について紹介するというものです。この記事の著者は、取り上げた出版物についての考えや解釈を会員と共有し、また会員に対して新たな視点を提供します。このブックレビューのコーナーに本が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きっかけとなり、読者は、職場にあるのに気づかなかつたかもしれない本を手取るかもしれません。

書評では、幅広い読者層が興味を持てるよう、業務上読んでおいたほうが良いものから医療マンガまで、多様なセレクトの本を取り上げています。

最近取り上げた図書の一例をご紹介します。

・『ヒポクラテス医学論集』(ヒポクラテス著；國方栄二編訳 岩波書店, 2022) ISBN : 9784003390122

・『大学のデジタル変革 —DXによる教育の未来—』(井上雅裕 編著 東京電機大学出版局, 2022) ISBN : 9784501633806

・『あの図書館の彼女たち』(ジャネット・ステスリン・チャールズ著；高山祥子訳 東京創元社, 2022) ISBN : 9784488011130

・『侠医冬馬』(村上もとか著；かわのいちろう共同作画 集英社ヤングジャンプコミックスGJ, 2019) ISBN : 9784088928043

ブックレビューコーナーを編集委員として担当する上で、私が直面する主な課題のひとつは、書評執筆を引き受けてくれる方を見つけることです。みなさま多忙な職業柄、喜んで書評を書いてくれる人を確保するのは難しいものです。さらに、図書館に勤務している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読書習慣があるとも限りません。目の前を多くの本が通り過ぎるばかりで、なかなか手に取って読む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私たちも、他の皆さんと同様、YouTubeやNetflix、SNSなどの誘惑に四六時中囲まれています。その誘惑をはねのけ、最近面白い本を読

んだことがあります。なおかつ書評を書いてくださる人を探し当てねばなりません。毎回、加盟館会員の方に執筆依頼をかけ、断られることも多いですが、執筆を承諾してくださる方を見つけたときは、とてもうれしいものです。

読者の皆様に価値ある図書をご紹介し、読書の楽しみを提供し続けられるよう日々取り組んでいます。

6. 東西南北 (News)

東西南北では、医学図書館員が知っておくべきことや日常業務にも役立つニュース記事を掲載します。ニュースソースは、新聞記事だけでなく幅広いメディアからニュース記事を収集しています。記事の作成は、編集委員と地区会選出の編集協力委員に依頼します。

情報源は、新聞・雑誌などの出版物、会議開催の案内、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以下の

内容を掲載しています。

- 1) 医学関係図書館業務に直接関係するニュース
- 2) 医学関係図書館業務に間接的に関係するニュース
例えば、医学関係、図書館・情報学関係、出版関係、著作権問題など。
- 3) コンピュータ・通信（インターネットを含む）関係としてのニュース
- 4) その他、注目すべきニュース

毎号、たくさんの委員たちに記事を書いてもらいます。人によって注目するニュースは違うので、幅広い内容の記事が集まり、読者の参考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また、その時に話題になったことやできごとを掲載していますので、後々見返すとちょっとした史料集にもなるかと思います。

7. Journal Club

Journal Club (以下、JC)は、医学図書館の日常業務の参考となる論文などを紹介している記事紹介欄です。読者の個人啓発や業務に役立つ記事を目標に選択し、それを以下の9つのカテゴリー分類し掲載して

います。

「Library(医学)」, 「Library(その他の図書館)」: 図書館、情報学関連の話題

「Bibliometrics」: 学術文献等に対する書誌情報を計量的に分析した研究論文や記事

「Computer & Internet」: コンピュータやインターネット関連, AIに関連した記事

「Health Care and Services」: 患者図書や医学系図書館における利用者教育や利用者リテラシーに係わる情報

「Medical Education」: 医学図書館に関わりそうな医療者の育成記事

「Medical」: ガイドライン関連記事など

「Miscellaneous」: そしてその他、業務に関連しそうな記事

編集委員会でJC採択誌を決め、編集委員及び地区協力員の協力を得て記事を収集し、紹介欄を作成しています。記事作成時には前述した9つの記事カテゴリー、論題、また英語論文の場合は英論題和訳、著者名、記載誌名、年、巻号、ページ、DOI、キーワードといった書誌事項を記録しています。キーワードは取り上げた論文に関するキーワードを3~5個付与していますが、著者が作成したキーワードがあればそれらを優先していただきます。著者キーワードが無い場合は記事編集者が内容に沿ったキーワードを独自に作成し付与しています。

収集した記事は、JC担当者が原稿掲載用に体裁を整えます。その際には、担当者及び各号の担当者、編集委員長とで記事の取捨選択等やカテゴリー振り分けの見直しを行うことがあります。

記事体裁を整える際には、誤字脱字はもちろんのこと内容がJCに相応しいものか、英論文標題の和訳は正確か、編集者が付与したキーワードが適切か、カテゴリーはあっているか、と言ったことに気を付けています。とくに、JCに掲載すべき内容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のはとても難しいです。号担当者、編集委員長と共に悩みつつ、毎号記事本文を確認しながら取捨選択を行っています。

JC欄を編集していると、医学界や医学図書館界で

は今何が話題になっているかがすぐにわかります。例えば、最近ですと各カテゴリーでChatGPTをはじめとしたAI関連の記事が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JCは、数多ある雑誌を1誌1誌読者自身が確認せずとも、興味がある分野の記事や、何が話題かをJC欄を見ればわかるようにと考えて作成しています。

今後も、読者の業務や自己研鑽に役立つ記事をタイムリーに紹介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おわりに

編集委員会の活動に対してはお給料がでるものではなく、全員が他に本業を行う傍らで活動に従事しています。時としては辛いこともあります。忙しい時には、本業の業務後に遅くまで作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

それでも、編集作業は楽しいです。本当です。やりがいがあります。それも本当です。私たちは変な人の集まり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れは違います。たぶん。

著者から送られてきたWordやExcelの原稿はまだ

片鱗のようなものです。それを、著者と編集委員の共同作業でブラッシュアップし完成させていく楽しさ、できあがった記事を、まとめ、並び替えて1冊の出版物にしていく楽しさ、喜び、達成感をどう表現すればよいでしょうか。文字にするのはとても難しいです。しかも1度経験すると、この気持ちをなかなか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が編集委員のモチベーションの源かもしれません。

IGAKU TOSHOKANも、文字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っている学術誌です。学術誌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は長い歴史があり、対面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変化させた今回のパンデミックに於いても、学術誌の存在意義は変わりませんでした。おそらく今後も根本的には変わ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医学図書館という領域で、会員間の文字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支え、会員の専門性向上を支える存在として、活動を継続していきます。

末尾になりましたが、韓国の医学図書館を支えてきた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の50周年に重ねてお祝い申し上げるとともに、引き続きのご発展をお祈りいたします。